

커버스토리(2026. 6)

전력 수요 급증 시대,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준비한 AEO 전략

AEO-CP 상호인정과 협력사 상생으로 완성하는 글로벌 경쟁력

1. 에너지 전환 시대, 두산에너지빌리티의 공급망 관리 비결



최근 전 세계는 AI(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함께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전력 수요 대폭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이고 청정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 역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두산에너지빌리티**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주·단조* 중심의 기초 소재 생산부터 원자력·복합화력 발전설비, SMR**, 해상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아우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플랜트 기업**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국내외 다수의 사업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리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 자푸라(Jafurah)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일찌감치 **무역 안보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2018년 수출입업체 부문 AEO** 공인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탄탄한 **AA등급**을 유지하며 체계적인 내부통제와 법규준수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공급망 내 협력사들과의 상생에 앞장선 공로로 **2025년 AEO 기업의 날, 동반성장 부문 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가장 모범적인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공업 업계 최초로 CP(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한 이후 **네 차례 연속 등급**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수출입 안전과 무역 안보 분야에서 우수한 자율관리 체계를 증명해냈다. 특히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 파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관세청과 산업부가 전격 도입한 **'AEO-CP 상호인정'**은 두산에너지빌리티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강력한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6월호 커버스토리에서는 **두산에너지빌리티**의 글로벌 공급망의 최전선을 지휘하는 **이한희 총괄책임자**를 만나, 격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망 관리 전략**과 **AEO 제도 운영 노하우**, 그리고 **AEO-CP 상호인정**이 가져온 **시너지 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주·단조 - 금속을 가열해 용해시킨 뒤 주형에 주입 후, 일정한 형태의 금속 제품을 만드는 주조
금속 재료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한 후, 압력을 가해 특정 형체를 만드는 단조

** SMR (소형모듈원전) - 증기발전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

II. 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AEO 제도를 선택했을까



< 두산에너지빌리티 이한희 총괄책임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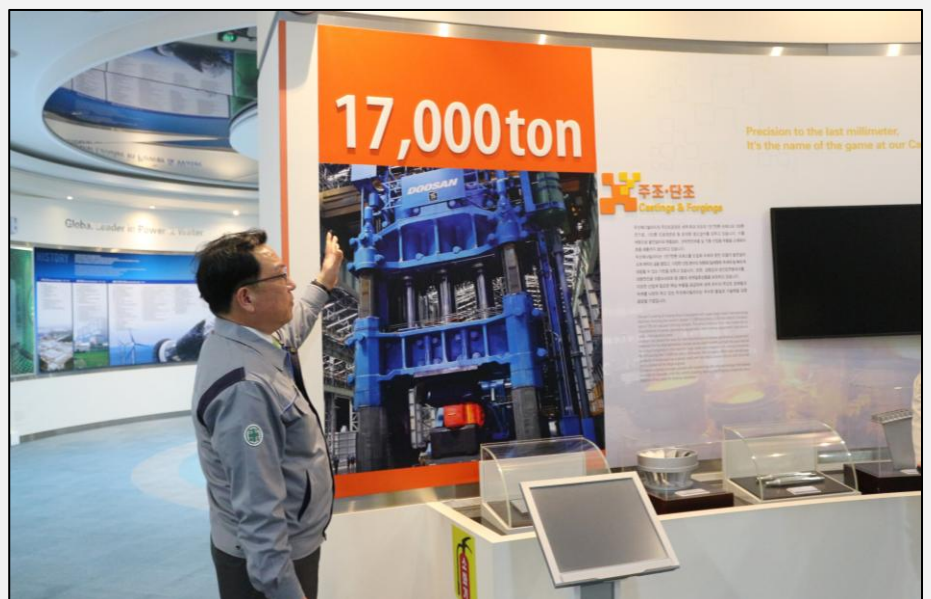
두산에너지빌리티는 2018년, **해외 프로젝트를 확대**하면서 수출입 업무의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수출입 업체 부문에서 첫 AEO 공인**을 취득하게 되었다.

공인준비 과정에서 다수 기업들이 외부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아 AEO 공인을 준비했던 것과 달리,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통관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직접 발로 뛰며 **관련 법규를 학습**하고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한희 총괄책임자는 “준비과정에서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는 현재까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기업지원센터와 한국AEO진흥협회의**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당시 내재화된 시스템과 운영 체계가 현재의 안정적인 AEO 제도 운영 **기반**이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공인 취득 이후 두산에너지빌리티는 AEO 제도 운영을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닌 **기업 경영 전반의 과제**로 관리하고 있다. 수출입 안전관리를 핵심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인식하고, **전사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 협업 체계**(Cross functional System)로 운영하며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한희 총괄책임자는 AEO 공인은 취득도 중요하지만 **유지** 또한 중요하다”라며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 아래 **관련 부서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꾸준한 **AA등급 유지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초 아래, 현재까지도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급망 전반의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 기업 소개를 하고 있는 이한희 총괄책임자 >

III. AEO 제도가 만드는 글로벌 경쟁력

AEO 제도는 **신속통관, 검사축소, AEO MRA***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한희 총괄책임자는 그 중에서도 현재 실무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혜택으로 **‘신속통관’**을 꼽았다.

플랜트 산업은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수많은 기자재가 국가 간 이동하는 만큼, **납기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긴급 운송**이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때 통관 지연은 곧 프로젝트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두산에너지빌리티는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긴급 물품의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납기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 산업 특성상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특정 세관**으로 **통관 업무**가 **장기간 집중**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AEO 공인기업이라는 사실은 관세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한희 총괄책임자는 “당사가 AEO 공인기업임을 명확히 소통함으로써 관세당국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원활한 통관 업무**로 이어지는 **유무형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의 AEO 공인 가치는 국내 통관 절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글로벌 시장**에서 AEO 공인은 기업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남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통관 지연 우려에 대해 **AEO 공인**과 **AEO MRA 활용 방안**을 설명함으로써 **우려를 해소**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주나 유럽 고객사**의 경우에도 영업 단계에서부터 당사의 **AEO 공인 여부를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급망 안전관리 역량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두산에너지빌리티에게 AEO 제도는 통관편의를 넘어 **프로젝트 수행 자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역량과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쟁력이 되고 있다. AEO 제도가 **‘글로벌 통용 여권’**이라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이한희 총괄책임자를 인터뷰하고 있는 협회 김재성 부장 >

* **AEO MRA (상호인정약정)**
AEO 공인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수준의 세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관세당국 간의 약정

IV. 협력사의 경쟁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글로벌 플랜트 사업은 수많은 협력사와 공급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된다. 발전설비 하나를 제작하는 것마저도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가 함께 참여하는 만큼,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

두산에너지빌리티가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한희 총괄책임자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두산의 경쟁력”이라며, “공급망 전체가 함께 성장해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철학 아래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협력사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약 9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비롯하여 역량 강화 교육, 해외 동반 진출 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년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여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 협력사를 포상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협력사 지원과 동반성장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2025년 AEO 기업의 날에는 동반성장 부문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자사의 수출입 안전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그 가치를 확장하고 있다.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공급망 구축이야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 2026년 두산에너지빌리티 파트너스 데이 >

V. AEO-CP 상호인정, 두 제도가 함께 만들어내는 시너지

AEO 제도와 **CP**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제도지만, 기업 운영 방식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두 제도를 모두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며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한희 총괄책임자는 “두 제도는 각각 공급망 안전관리와 무역 안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정기적인 **내부통제 활동**과 **관련 부서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최근 AEO 제도와 CP 간 상호인정 체계가 도입되었다. **AEO-CP 상호인정**은 양 제도의 유사한 평가 요소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CP 기업은 AEO 공인 취득 및 갱신 심사 시 **내부 통제시스템과 안전관리 분야**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AEO 공인기업은 CP 지정 및 갱신 심사 과정에서 AEO와 중복되는 **일부 항목**에 대해 **심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AEO-CP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한희 총괄책임자 >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발맞춰 과거 별도로 운영되던 **통관 업무**와 **전략물자 관리 업무**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한희 총괄책임자는 “기존에는 두 공인의 갱신 심사 과정에서 중복되는 자료를 각각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호인정 이후 중복되는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었다”라고 말했다.



<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한희 총괄책임자 >

이어 “수출입기업 입장에서는 가려운 곳을 긁어준 **최고의 규제 혁신**”이라며 “심사 대응과 서류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 시너지 효과**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상호인정은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사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기업의 **실질적인 편의 향상**과 **운영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VI.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힘, AEO



< 두산에너빌리티 임직원과 협회 임직원의 단체사진 >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한희 총괄책임자에게 AEO 공인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을 물었다.

“AEO 공인은 단순한 공인 취득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이한희 총괄책임자는 “성공적인 AEO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체질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전사적인 협업 체계**와 **최고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외부 교육과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부 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는 앞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관련 법규를 학습**하고 **자체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던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결국 AEO 공인 취득의 핵심은 공인증서 자체가 아니라 **기업 내부에 축적된 관리 역량과 조직문화**에 있다는 의미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전력 수요** 속에서 **글로벌 Top-tier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한희 총괄책임자는 “**세계 일류 기술력과 철저한 준법 무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안정적인 AEO 제도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청과의 파트너십**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구축해 온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내부통제관리 경험**은 AEO 공인을 준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전사적 협업 체계**와 **협력사 상생**, 그리고 **AEO 제도**와 **CP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온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사례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적인 운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AEO진흥협회 역시 앞으로도 **기업과 관세당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작성 : 연구기획부 김예나 연구원
(ynkim@aeo.or.kr)

